

[특집]

고령화시대 노인의 실태와 교회의 역할*

—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한 사목 방향 —



김 문 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노인 일반의 현실
 - 2.1. 일반적 측면
 - 2.2. 종교적 측면
3. 노인 신자의 현실
 - 3.1. 일반적 측면
 - 3.2. 종교적 측면
4. 교회의 사목 방향
 - 4.1. 교리교육
 - 4.2. 전례교육
 - 4.3. 신심활동
 - 4.4. 봉사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대한민국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불과 몇 년 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노인 신자들의 비율이 급증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사목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실태와 교회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회의 입장에서 노인들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그에 따라 노정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과 영성 측면에서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그만큼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과 문제를 비신자와 신자의 경우로 나누어 일반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에서 각각 고찰한 후 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의 역할과 사목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 실태에 대한 분석은 한국정부 차원의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천주교회 차원의 노인 사목의 방향과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선결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실상과 문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즉 선험적 이론 제시가 아니라 객관적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을 선행한 후, 이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교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사목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소 지난하게 보이는 이러한 고찰은 노인 문제에 대한 막연한 추측, 또는 근거 없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한 판단이나 결론을 지양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과 사목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노인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 한국갤럽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인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와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천주교회 통계자료,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에서 발간한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인 『생명과 가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에서 조사한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와 『2012년 서울대교구 노인사목 실태 조사자료』 등을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

2. 노인 일반의 현실

2.1. 일반적 측면

UN의 2020년 행복보고서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53개국 중 61위이다. 이는 2019년 행복보고서에서 발표한 세계 156개국 중 54위에서 무려 7계단이나 하락한 순위이다. 유엔은 객관적인 수치로서 1인당 GDP(GDP per capita)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과 건강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인생 선택의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관대함(generosity), 부패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나라 국민의 행복도를 산출하고 있다.

객관적인 수치의 경우, 세계은행이 2020년에 발표한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으로 집계한 2018년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 6,194억 2,370만 1,169달러이다.²⁾ 이는 세계 182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22만km²에 달하는 한반도 면적 중 남한의 면적이 불과 9만 9,720km²이며, 남한의 총인구가 2020년 추계 5,178만 57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³⁾에 의하면, 2020년 세계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72.3세로 남자가 69.9세이고 여자가 74.7세인데 반해, 한국인의 경우는 평균 82.8세로 남자가 79.6세이고 여자가 85.7세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남녀 공히 세계인의 기대수명보다 무려 10세나 많다. 이에 반해 주관적인 인식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20년에 발표한 ‘2019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80개 조사대상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에 45위였던 데 비해 6계단이 상승하여 부패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1) John Helliwell,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2) The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isticsList>) (통계청자료 이하동일)

4)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s://www.transparency.org/en/countries>)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나 기대수명에 비하면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를 통하여 보면 대한민국은 행복의 객관적인 수치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주관적인 인식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물질적·육체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사회적·정신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복의 조건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인은 외적인 풍요와 내적인 결핍의 대비적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인들의 현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오늘의 노인들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한국전쟁을 맞아 동족상잔과 이산의 아픔을 겪었다.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윤리도덕과 예의범절을 우선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던 한민족의 전통은 점차 약화되었다. 수출입국(輸出立國)의 표어 아래 경제성장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었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황금만능주의와 일확천금의 꿈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1997년 IMF사태,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직장인들이 해고되었으며, 가계가 파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졌고, 그에 따른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가 표면화하였다. 그에 따라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육체에 대한 관심을, 영원에 대한 지향보다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곧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의 역할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2,049만 9,543가구 중 28.53%인 584만 8,594가구가 1인가구이다. 1990년의 1인가구 비율이 9.0%였다는 점을 보면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많았고,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많았지만,

이제는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진 것이다. 그 중 65세 이상의 1인가구는 144만 4,588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진 만큼 노인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년 노인의 학대경험이 전체 노인의 9.8%인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14.5%에 달하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천주교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사목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취약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거기에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알아뵈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는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과 그 밖의 많은 이를 생각합니다.’⁵⁾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통계청의 2020년 ‘KOSIS 100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비율이 15.7%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6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40.1%로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현상은 혼인과 출산 저하, 낙태와 자살 증가라는 부정적 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새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생명 경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 중 자살이 2002년에는 8위였는데, 2012년에는 4위로 급상승하였다. 자살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7.9명이었던 것이 28.1명으로 무려 57.2%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이 12.5명이었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잘 드러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의 평균은 26.6명인데, 노인 자살자의 경우에는 65-69세가 33.3명, 70-74세가 39.9명, 75-79세가 59.3명, 80-84세가 70.7명, 85-89세가 66.2명, 90세 이상이 73.2명이었다.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평균 69.8명으로 60대에 비해 두 배를 넘기고 있다.

5)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10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168쪽.

이러한 경향은 2017년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7.7%, 건강 27.6%,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18.6%, 외로움 12.4%, 부부·자녀·친구 사망 8.3%, 부부·자녀 건강 4.9%, 기타 0.6% 순이었다. 또한 통계청의 2013년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른 자살기도 원인’에 의하면 정신과적 증상이 61%, 대인관계 문제가 24%, 금전손실이 3.2%, 신체적 질병이 2.6%, 외로움과 고독이 2%, 직장관련 문제가 1.7%, 만성적 빈곤이 1.1%, 폭행이 0.2%, 학업관련 문제가 0.1%, 기타 4% 순이었다. 두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살의 큰 원인이 정신적 문제라는 점이다. 즉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건강과 경제 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단절이나 이별, 그리고 외로움 등이 비중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인들이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에 경도되어 있으며, 물질적·육체적 측면보다 사회적·정신적 측면에서 삶의 질과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종교적 측면

한국인의 종교 성향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의 제5차 비교조사에서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종교 실태’에 대해 물었다. ‘나의 개인 생활에는 종교가 중요하다’가 2014년의 경우 52%였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인 90%, 천주교인 81%, 불교인 59%, 비종교인 30% 순이었다.⁶⁾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1997년 26%, 2004년 37%, 2014년 45%였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97년 23%, 2004년 14%, 2014년 19%였으며,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1997년 19%, 2004년 21%, 2014년 18%였으며, 내 자신을 믿기 때문이 1997년 10%, 2004년 18%, 2014년 15% 순이었다.⁷⁾ 개인생활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최근으

6)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37~38쪽.

7) 같은 책, 29쪽.

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종교 의식’에 대해 물었다. 2014년의 경우 ‘이 세상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가 만들었다’는 창조설에 34%가 그렇다, 52%가 아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심판설에 그렇다 25%, 아니다 60%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창조설은 2014년의 경우 개신교인의 59%(1984년 80%), 천주교인의 45%(1984년 82%), 불교인의 34%(1984년 42%), 비종교인의 21%(1984년 33%)가 믿었다. 절대자의 심판설 역시 2014년의 경우 개신교인의 61%(1984년 76%), 천주교인의 38%(1984년 76%), 불교인의 16%(1984년 30%), 비종교인의 12%(1984년 19%)가 긍정하였다.⁸⁾ 창조설과 심판설을 믿지 않는 비율이 최근에 올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 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에 1984년 67%, 1989년 63%, 1997년 72%, 2004년 68%, 2014년 63%로 답해 종교가 꾸준히 불신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또한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에 68%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종교별로는 비종교인이 76%, 불교인이 67%, 천주교인이 62%, 개신교인이 53% 순이었다.¹⁰⁾ 또한 ‘우리 주변에 품위와 자격 미달 성직자가 많다’는 물음에 87%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품위가 없거나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흔하다’는 의견은 1984년 65%, 1989년 71%, 1997년 79%, 2004년 87%까지 꾸준히 늘어 2014년 조사에서는 87%로 더 이상 변화가 없었다. 종교별로는 불교인의 88%, 개신교인의 85%, 천주교인의 89%, 비종교인의 87%가 그렇다고 하여 종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¹¹⁾

한국인 전연령층이 보인 이러한 종교 성향의 추이는 노인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노인들의 종교적 성향은 통계청의 ‘노인실태

8) 같은 책, 56~57쪽.

9) 같은 책, 98쪽.

10) 같은 책, 100쪽.

11) 같은 책, 95~96쪽.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2011년에 '노인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을 묻자 건강유지 52.3%, 소득창출 19.6%, 편히 쉬다 14.6%, 종교 활동 5.8%, 취미활동 4.1%, 자원봉사 2.5%, 자아개발 1.1% 순으로 대답하였다. 정신적 측면의 욕구가 거의 없었으며, 종교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5.8%에 불과하였다. 이어 '노인의 현재 걱정 및 고민사항'에서는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가 51.3%, 경제적 어려움이 1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8년에 60세 이상 노인의 '노후생활 준비 여부 및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물음에 건강한 신체가 51.2%, 경제적 준비가 43.9%, 화목한 가족관계가 3.9%, 친구관계가 0.2%, 종교 활동이 0.6%, 여가활동이 0.1%, 기타 0.1%라고 답한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노인들은 정신적 측면, 특히 종교 활동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종교 의식은 한국갤럽이 1997년에 조사한 자료¹²⁾에서 보다 자세히 드러난다. 우선 '요즈음 종교 단체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못 주고 있다.'는 설문에 대하여 아주 그렇다 14.2%, 약간 그렇다 48.7%, 약간 그렇지 않다 17.9%, 확실하지 않다 5.4%, 모르겠다 13.8%로 답변하였다. 종교의 역할에 대하여 62.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것이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60%, 천주교가 57.8%, 개신교가 51.4% 순으로 그렇게 답하였다. 이어 '죽은 다음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있다 52.6%, 없다 26.0%, 모름/무응답 21.5% 순으로 답변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86.4%, 천주교가 77.5%, 불교가 54.2%의 순으로 그렇게 답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후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8-24세의 56.7%, 25-29세의 56.0%, 30-39세의 54.0%, 40-49세의 49.8%, 50세 이상의 48.5%가 사후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답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과 경제에 주로

12)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97.9.14~26.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신적 측면 특히 종교 활동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불신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인 신자의 현실

3.1. 일반적 측면

한국천주교회 통계¹³⁾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02만 6,9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8%를 차지한 반면, 65세 이상 천주교 노인 신자는 122만 1,407명으로 전체 신자의 20.65%에 달하고 있다. 교회의 고령화가 사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한국가톨릭교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신자 비율은 총인구 대비 11.4%지만, 45-49세는 11.1%, 50-54세는 11.7%, 55-59세는 13.0%, 60-64세는 14.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65-69세는 14.6%, 70-74세는 14.3%, 75-79세는 13.5%, 80-84세는 14.3%, 85-89세는 17.8%, 90-94세는 26.2%, 95-99세는 50.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아동 청소년 신자 연령기인 0-19세는 모두 50만 8,517명으로 전체 신자의 8.59%에 불과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천주교회가 노인사목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한국천주교회가 고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아니라 노인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열성도와 만족도가 낮다는 데 있다. 2014년 생명과 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60세 이상 비신자들의 경우 건강 57.4%, 경제활동 14.9%, 부부관계 6.4%, 종교활동/신앙생활 11.3%,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4.3%, 대인관계 4.3%, 사회봉사 0.7%, 취미생활 0.7%를

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통계청의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들었다.¹⁴⁾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전 연령층 비신자들의 종교활동/신앙생활이 8.2%인데 반해, 비신자 노인들은 11.3%로 답해 나이가 들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신자들의 경우에는 건강 44.7%, 종교활동/신앙생활 19.9%, 경제활동 14.2%, 부부관계 12.1%,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3.5%, 대인관계 2.1%, 사회봉사 3.5%를 들었다.¹⁵⁾ 주목되는 것은 전 연령층 신자들의 종교활동/신앙생활이 17.2%인데 비해, 신자 노인들이 19.9%로 답하기는 하였지만 40대의 19.8%와 50대의 20.9%에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신자들의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한 60세 이상이 답한 노년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비신자들의 경우는 건강문제 46.8%, 경제적 문제 31.2%, 소외감/고독감 7.8%, 손자손녀 돌보기 4.3%, 부모자녀간 갈등 3.5%, 주거문제 1.4%, 자녀결혼문제 0.7%, 자녀취업문제 0.7%, 없다 3.5%를 꼽았다.¹⁶⁾ 반면 신자들의 경우는 건강문제 48.9%, 경제적 문제 24.1%, 소외감/고독감 13.5%, 부모자녀간 갈등 2.8%, 손자손녀 간의 갈등 2.1%, 자녀결혼문제 1.4%, 주거문제 0.7%, 종교/신앙 0.7%, 없다 5.0%를 꼽았다.¹⁷⁾ 신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신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소외감/고독감의 측면에서는 두 배 이상 힘들게 느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외감/고독감의 근원이 내면에 있든, 아니면 가정공동체·마을공동체·교회공동체에 있든 간에 그것은 신앙과 영성의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여가시간 활용방법에서도 잘 드러난다. 60세 이상 비신자 노인들의 경우 여가시간에 함께하는 대상으로 가족 41.8%, 친구/애인 29.1%, 혼자 15.6%, 선후배나 동호회사람들 10.6%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에 하는 일로 TV시청과 휴식 51.8%, 취미생활 18.4%, 종교/신앙활동 17.0%, 가족단위활동 7.8%, 동호회활동

14)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생명과 가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522쪽.

15) 같은 책, 347쪽.

16) 같은 책, 525쪽.

17) 같은 책, 351~352쪽.

2.1% 순으로 들었다.¹⁸⁾ 비신자 노인들은 전연령층 비신자들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TV시청과 휴식 시간이 늘어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종교/신앙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신자들의 경우 여가시간에 함께하는 대상으로 가족 52.5%, 친구/애인 21.3%, 혼자 19.1%, 선후배나 동호회사람들 7.1%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에 하는 일로 종교/신앙활동 38.3%, TV시청과 휴식 34.0%, 취미생활 14.2%, 가족단위활동 10.6%, 동호회활동 0.7% 순으로 들었다.¹⁹⁾ 노인 신자들은 전연령층 신자들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비신자 노인들에 비해 많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비신자 노인들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신자 노인들이 비신자 노인들과 달리 여가시간에 TV시청이나 휴식보다 종교/신앙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목주기도, 성체조배, 피정, 묵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설문에 60세 이상 비신자들의 경우 87.9%,²⁰⁾ 60세 이상 신자들의 경우 95.0%²¹⁾로 답하였다. 그러나 ‘자살 고려 경험이 있다’는 물음에서는 비신자 노인들의 경우 12.8%,²²⁾ 신자 노인들의 경우 9.9%²³⁾로 답하였다. 신자 노인들은 종교/신앙 활동을 가장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명 중 한 명이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어 비신자 노인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면은 자살을 고려한 이유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60세 이상 비신자들의 경우 생활고/경제력 33.3%,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 27.8%, 실직/사업실패 11.1%, 우울증 11.1%, 병고 5.6%,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5.6%, 가까운 사람과 이별 5.6%, 순이었다.²⁴⁾

18) 같은 책, 495~496쪽.

19) 같은 책, 319~320쪽.

20) 같은 책, 590쪽.

21) 같은 책, 419쪽.

22) 같은 책, 591쪽.

23) 같은 책, 420쪽.

24) 같은 책, 592~593쪽.

반면 60세 이상 신자들의 경우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 35.7%,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21.4%, 가까운 사람과 이별 14.3%, 생활고/경제력 7.1%, 우울증 7.1%, 병고 7.1% 순이었다.²⁵⁾ 노인 신자들의 경우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비신자 노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의 문제가 흔히 예견하는 생활고나 병고를 앞서고 있어 주목된다. 신자 노인들은 종교/신앙 활동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측면에서 비신자 노인들보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는 곧 신앙과 영성의 영향력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과 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느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²⁶⁾라는 사도 바오로의 고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3.2. 종교적 측면

한국천주교회 통계²⁷⁾에 따르면, 천주교신자는 591만 4,669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8.8%, 2010년에 10.1%, 2015년 10.7%로 점차 증가되어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교 42명, 신부 5,333명, 남자수도자 1,594명, 여자수도자 1만 159명, 대신학생 1,209명, 본당 1,756개, 공소 709개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가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커졌지만, 내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활 판공성사 참여자가 31.4%, 성탄 판공성사 참여자가 30.3%, 주일미사 참례자가 18.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주일미사 참례자의 경우는 2000년에

25) 같은 책, 421~422쪽.

26) 필리 4,13.

2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29.0%, 2010년에 27.2%, 2015년 20.7%로 점차 하락하다가 마침내 20%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천주교회 설립 초기에 미사를 드릴 사제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정하상과 유진길 등이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교황청에 대교황청원문(對敎皇請願文)을 올려 성직자 파견을 청원하였던 사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성찬례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²⁸⁾이라는 가르침이 무색할 따름이다. 이는 신심이 식은 신자, 미지근한 신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외형적·양적 성장과 내면적·질적 저하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국면이다.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중국 북경의 북당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옴으로써 세워졌다. 이후 1만여 위가 넘는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부정과 독재로 얼룩진 정치상황을 거치는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²⁹⁾ 이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정신적 안식처와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면서 신자 수가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실현된 오늘날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물질주의와 성과주의가 팽배하면서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경도되어 그러한 고무적인 현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 장단기 냉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신자들의 세속화 성향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갤럽이 1997년에 조사한 보고서³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종교를 믿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 53.7%,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17.3%, 가정환경이나 주위의 권유로 11.1%, 복을 얻기 위해 10.0%, 진리와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4.6%,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0.6%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항목의 경우 천주

28) 『가톨릭교회교리서』 1324항.

29) 1코린 4,11.

30)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97.9.14~26.

교가 66.2%로 가장 많았고, 불교 58.6%, 개신교 45.9% 순이었다. 그러나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라는 항목의 경우 개신교가 33.3%인 반면, 천주교는 10.9%, 불교는 1.9%에 그쳤다. ‘진리와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라는 항목 역시 개신교가 6.3%인 반면, 천주교는 3.3%, 불교 1.7%였다. 이에 비해 ‘복을 얻기 위해서’라는 항목의 경우는 불교가 17.5%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개신교 5.3%, 천주교 4.1%로 그 뒤를 이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 및 진리와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면은 ‘종교가 개인 생활에 중요하다’고 답한 천주교 신자가 1984년 97%, 1989년 96%, 1997년 89%, 2004년 82%, 2014년 81%라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³¹⁾ 신자이면서도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천주교의 핵심교리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죽은 다음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천주교 신자가 77.5%이고, ‘사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7.2%나 되었다.³²⁾ 종교가 현세에 국한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음으로 창조설을 믿는 천주교 신자는 1984년 82%, 1997년 64%, 2004년 54%, 2014년 4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후심판설을 믿는 천주교 신자 역시 1984년 76%, 1997년 49%, 2004년 35%, 2014년 38%에 불과하였다.³³⁾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55%가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있으며, 62%가 사후심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천주교의 4대 교리인 천주존재에 대한 부정이며, 아울러 상선별악에 따른 천국·연옥·지옥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면은 절대자/신이 있다고 긍정한 천주교 신자가 1984년 84%, 1997년 75%, 2004년 60%, 2014년 59%에 그치고 있다는 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천주교 신자가 1984

31)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37~38쪽.

32)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97.9.14~26.

33)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59~61쪽.

년 72%, 1997년 73%, 2004년 57%, 2014년 65%로 혼란을 거듭하였으며, 사후의 영혼을 긍정적인 천주교 신자가 1984년 82%, 1997년 78%, 2004년 66%, 2014년 64%로 낮아졌다는 점³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편 천주교 노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앙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62.8%, 평화를 얻기 위하여 21.8%, 의무이기 때문에 9.8%, 불안 3.4%, 교제 0.8%, 벌받을까봐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⁵⁾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게 나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노인 신자의 37.2%는 여전히 신앙의 본질 내지 핵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어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절대적 37.8%, 큰 32.8%³⁶⁾로 긍정적이었지만, 그 외의 29.4%는 보통 이하의 미지근한 상태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시기별로 조사한 여러 통계자료를 감안하면 오늘날 신앙의 약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며,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천주교 노인 신자들의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는 한국 노인 일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 상실, 삶 자체에 대한 회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자살 수용, 마음의 평온이 신앙의 목적, 창조주와 사후심판 같은 핵심교리에 대한 믿음 약화, 진리와 정의 추구 약화, 미사와 성사 참여 저조, 기도와 영성 생활의 결핍, 종교활동/신앙생활에 대한 중요도 저하 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자로서 삶의 의미를 잃고 회의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34) 같은 책, 56~57쪽.

35)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07, 199쪽.

36) 같은 책, 205쪽.

4. 교회의 사목 방향

종교는 사람들이 초월적이고 절대적 존재인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정서적 문제들은 한국천주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의 존재, 창조설, 심판설, 사후영혼과 같은 천주교의 핵심교리를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노인 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종교에 대한 인식 내지 신심이 약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천주교회는 신앙과 영성의 측면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 시대에 맞는 사목방향을 잡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노인사목에 대한 설문 결과³⁷⁾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사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평신도들이 신앙 43.4%, 복지 41.2%, 교육문화 15.4% 순으로 답한 데 반해, 사목자와 수도자들은 복지를 각각 47.7%와 41.3%로 가장 비중 있게 꼽아 괴리를 보였다. 노인 사목에 대한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부터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노인 신자들이 본당에 원하는 사목활동 중 가장 많이 꼽은 신앙부분에서는 임종미사와 장례식 50.7%, 노인 신앙강좌 38.1%, 노인교리성서반 28.5%, 노인미사 26.2% 순이었다. 또한 복지부분에서는 노인건강의료지원이 53.7%, 무료식사제공 33.8%, 노인상담 30.8%, 거동불편노인 돌보기 26.0%, 차량운행 21.3%, 취업알선 13% 순이었다. 이어 교육문화부분에서는 노인대학운영 68.6%, 야외행사 37.9%, 경로잔치 36.8%, 봉사활동기회 2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면 노인사목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노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지와 교육문화 부분이

37) 같은 책, 244~246쪽.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교회 밖에서도 시행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 본연의 신앙과 영성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4.1. 교리교육

한국천주교회는 신앙을 견결히 한다는 측면에서 교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받았던 교리교육이 교리에 대한 지식의 전부이거나, 아니면 교리교육을 받은 지 오래되어 교리내용을 잊었다면 재교육을 통하여 신심을 다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1997년에 펴낸 교리교육 지침에서 ‘교리교육은 노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부요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또 손자들에게 존중받는 조부모로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리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다.’³⁸⁾는 언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교리교육은 다른 형태의 신앙 교육들을 선행하고, 수반하며, 풍요롭게 한다.’³⁹⁾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노인 자신의 신앙심을 견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교리교육을 통하여 손자 손녀를 비롯한 후세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발판이자 선교를 위한 기본소양을 쌓는 계기가 된다.

특히 노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인 죽음을 대비한 교리교육, 즉 사말교리(四末敎理)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노인 신자들의 다수는 종교를 갖는 이유로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불안정한 현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구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사말교리교육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결코 피할 수 없는

3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교리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188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62쪽.

39) 『가톨릭교회교리서』 2226항.

길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종말이자 절망의 나락은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삶의 한 매듭이고, 심판은 죄와 악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선의 승리이며, 천국은 하느님과 의인들이 이루는 영원한 친교이고, 지옥은 생명과 행복을 주는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일깨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말교리에 대한 묵상은 곧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착점이 된다. 이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희망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늘 죽음을 묵상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실제로 노인 신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묵상한다’는 설문⁴⁰⁾에 가끔 47.2%, 항상 37.4%, 안 한다 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인 신자들의 84.6%가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빈도가 높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인 것이다. 또한 신앙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⁴¹⁾에 마음의 평화 89.1%에 이어 죽음에 대한 관심이 45.4%, 내세에 대한 확신이 27.2%로 뒤를 잇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신앙이 현세에서의 삶 못지않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신앙 부분에서 본당에 원하는 사목활동으로 임종미사와 장례예식을 50.7%로 가장 높게 응답⁴²⁾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노인들이 본당에서 미래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노인대학 38.8%에 이어 연령회를 31.0%로 꼽은 것⁴³⁾도 이와 같은 차원이다.

따라서 신앙선조들이 사말교리로 신심을 다지기 위하여 창작한 <사하가>·<선종가>·<공심판가>·<사심판가>·<천당강론>·<지옥강론> 등과 같은 사말천주가사⁴⁴⁾에 대한 강독 및 교육, 그리고 사말교리

4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 앞의 책, 213쪽.

41) 같은 책, 209쪽.

42) 같은 책, 244쪽.

43) 같은 책, 211쪽.

서⁴⁵⁾에 대한 강독 및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인 신자들이 천주교의 핵심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과 더불어 심판에 따른 상선벌악을 묵상하는 동시에 신앙선조들의 순교영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는 설문에서 36.5%가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불교 신자의 37.3%와 개신교 신자의 26.7%에 비해 천주교 신자의 39.1%가 그렇다고 응답⁴⁶⁾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교리교육, 특히 사말교리교육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4.2. 전례교육

한국천주교회는 미사를 중심으로 한 전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례는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이다. 이 전례의 중심에 미사가 있으며, 그밖에 성사·준성사·성무일도·성체강복 등을 통하여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재자인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창조설이나 사후심판설과 같은 핵심교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으로써 신자들이 미사를 비롯한 전례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하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가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 표징이

44) 참조: 김문태, 「천주가사 <스향가(思鄉歌)>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184,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4. ; 「천주가사 <스심판가>·<공심판가>의 교리형상화 양상과 복음화 방향」, 『신학전망』 190,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5. ; 「천주가사 <선종가>의 교리 시가화 양상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 「천주가사 <턴당강논>·<디옥강논>의 교리 시가화 양상」, 『어문연구』 17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 「천주가사 <선종가>·<스심판가>·<공심판가>의 창작 기반 고찰」,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 『사말천주가사와 벽위가사의 현세관과 내세관』,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45) 사말교리서는 한국천주교회 설립 초기에 신앙선조들이 강독하던 한글필사본 『스말론』과 『사후묵상』이 있다. 오늘날 알기 쉽게 출판된 사말교리서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펴낸 『죽음·심판·지옥·천국 —가톨릭교회의 사말 교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가 있다.

46) 한국갤럽, 「한국인의 죽음과 장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9.2.21.

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47)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48)고 덧붙이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상 제사와 최후만찬을 재현하며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미사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미사가 신자들의 삶 한가운데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기도와 영성 생활이 결핍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능동적인 미사 참례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으로 전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중이 부르는 성가대와 성가대의 활성화, 미사 전례를 거행하는 사제의 태도와 강론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49) 이 설문 결과는 신자들이 미사 전례의 진행과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사가 새로울 것 없는 형식적이고도 공식적인 행사가 되고 만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기쁘고 가슴 벅차야 할 주일미사가 무미건조하고 일상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다. 신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무감각·무감동의 주일미사야말로 냉담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일미사를 새롭게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미사의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례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신자들은 전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사의 참뜻을 깨닫는 한편, 그 위상과 가치를 인식하게 될

47) 『전례현장』 47항.

48) 『전례현장』 48항.

49)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회결과 종합 보고서』, 2013, 15쪽.

것이다. 즉 사제가 홀로 또는 대표로 하느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에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찬미 찬송하며 거룩한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례교육과 관련하여 ‘영혼의 목자들은 부지런히 또 꾸준히 신자들의 전례교육에 힘써, 그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 종교적 교양의 정도에 따라, 내적 외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⁵⁰⁾는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미사에 자주 참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신자들은 특별한 미사 때 감흥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성탄전야미사, 파스카성야미사, 사제서품미사, 서품사제의 첫미사, 수도원미사, 피정미사, 떼제미사, 장례미사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본당 차원에서 구역미사, 반미사, 단체미사, 가정미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 미사에서는 신자들이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미사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사 중에 행하는 응송이나 기도문에도 더욱 집중하게 되어 그 내용을 음미함으로써 감흥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양형영성체를 하여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모의 정이 솟아오를 것이다.

또한 노인 신자들이 교중미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가 다른 어린이·청소년·청년 미사에 자손들과 함께 참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미사를 통하여 교중미사에 익숙해져 있는 노인 신자들이 낯설면서도 새로운 전례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노인 신자들은 자신이 미사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이자 주관자로서의 위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가 된다.’⁵¹⁾는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50) 『전례헌장』 19항.

51) 『가톨릭교회교리서』 1144항.

관련하여 ‘본당에서 가족미사가 필요하다’는 전 연령층 신자의 응답이 80%⁵²⁾이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신자의 응답이 83%⁵³⁾에 달하였다. 본당 차원에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가정주간을 설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주일미사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한편, 위기의 가정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3. 신심활동

한국천주교회는 피정, 성지순례, 성시간이나 성체조배, 성경을 비롯한 교회서적 읽기 등과 같은 신심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노인 신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한 편이다. 남의 도움이 없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남과 어울려 함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가정 단위의 신심활동을 고려할 만하다.

실제로 본당의 가정생활 관련 강의/프로그램을 마련한 전 연령층의 신자들은 그 종류를 강론, 가정교리, 가정공동체 미사, 생명 윤리 교육, 부부생활 증진 프로그램, 가족 피정, 가족 캠프, 혼인갱신식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본당의 가정생활 관련 강의/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왔다. 전 연령층 신자는 앞의 순서로 답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 신자들은 강론, 가정교리에 이어 가족 피정을 세 번째로 꼽았다.⁵⁴⁾ 일상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수련의 계기인 피정, 특히 가족 피정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증인 것이다. 가족 피정은 노인 자신의 쇄신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성가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52)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생명과 가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173쪽.

53) 같은 책, 438쪽.

54) 같은 책, 440~443쪽.

또한 성지순례는 하느님에게 흠숭과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공경을 표하는 한편, 그간의 삶에 대한 참회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위한 신심활동이다. 성지순례가 신앙을 견결하게 하는 활력소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순례지는 본질적으로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사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가 거행되며, 사랑의 증거로써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크나큰 헌신을 보여 주는 거룩한 장소입니다.’⁵⁵⁾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에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허약한 노인들은 먼 길을 떠나거나 집단적인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방도가 있다. 여유가 없이 짜인 일정에 따라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이동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순례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또한 가족 간의 일치와 화합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본당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성시간이나 성체조배에 참여하기를 독려하여 성체신심을 키우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성체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하느님을 흠숭하는 한편,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일치하는 시간이기때문에 여생을 정리하는 노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노인들이 죽음·심판·천국·지옥이라는 사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며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마무리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선종을 예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신자들이 자살을 고려하는 이유로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체신심이야말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성체조배와 성체강복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55)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의 순례지(Sanctuarium in Ecclesia)」, 2017.2.11.

또한 성경 읽기는 신심활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성경은 하느님께 영감을 받아, 영원토록 한 번 쓰여서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달해 주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⁵⁶⁾ 실제로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응답은 전 연령층 신자의 경우 8.9%에 그쳤지만, 60세 이상 노인 신자의 경우 22%에 달하였다. 노인들이 혼자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신심활동인 것이다. 성경 읽기와 아울러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비롯한 각종 교리서와 신심서적, 성인과 복자들의 전기 읽기를 병행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시력이 약화되어 독서활동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⁵⁷⁾에서 ‘소리성경’이나 여러 종류의 ‘소리도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묵주기도와 묵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심활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구속에 따른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는 성서와 전례에서 따온 주제들이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신비에 일치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다. 많은 교황들이 묵주 기도를 참된 신심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기도라 칭송하며 권장하였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4.4. 봉사활동

한국천주교회는 신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은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향상시켜주는 촉매가 된다. 사회와 타인의 변화를 촉진하는

56) 『계시현장』 21항.

57) <http://www.catholic.or.kr>

이타적 측면뿐만 아니라 봉사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봉사는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내면적 신앙과 영성의 외면적 표출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에 ‘현재 하고 있음’이 3.9%, ‘평생 한 적이 없음’이 83.7%였다. 또한 교회의 보고서⁵⁸⁾에 따르면 비신자 노인들은 3.2%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신자 노인들은 29.1%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의 28.1%는 노인과 병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소위 ‘노-노 케어’가 장려되고 있는 오늘날의 효과적인 봉사방식이자 선교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교회 차원에서 의미 있는 봉사 영역을 개척해준다면, 노인 신자들이 언제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교황청 평신도평의회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노인의 존엄과 사명」에서는 교회 안에서 노인들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분야로서 ‘자선활동, 사도직(교리교사,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인), 전례 봉사(종신 부제, 독서자, 제대 봉사자, 비정규 성체 분배자, 전례사회자 등), 교회 운동 단체 참여, 가정(젊은 세대에 역사를 기억시켜 줌, 인간의 근본 가치를 증언함), 묵상과 기도, 시련·질병·교통의 십자가를 겸손과 복종으로 수용, 생명의 문화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⁹⁾ 이에 따라 교회는 노인들이 교회 안팎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봉사는 노인 신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노인 신자들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소극적 욕구에서 벗어나 신앙인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자아실현의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58)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07, 275쪽.

59)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사목방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31쪽.

노인들이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⁶⁰⁾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한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문화적 측면에서 교회의 변별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각 본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사목 프로그램은 노인대학 65.4%, 효도잔치 56.7%, 성경공부 51.2%, 특별활동반 34.1%, 독거노인방문 29.5%, 문화강좌 24%, 한글교실 15.2%, 컴퓨터교실 4.1% 순이었다.⁶¹⁾ 또한 노인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친구 사귀기 23.2%, 신앙생활 22%, 건강증진 15.5%, 배움 12.4% 순이었다.⁶²⁾ 노인사목 프로그램에서 성경공부의 비중이 적고, 노인대학 수강목적에서 신앙생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문화활동이 사회 기관의 문화 활동과 변별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사회의 여타 기관과 다른 점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1.7%, ‘자원봉사자가 여타 기관보다 좋다’는 응답이 16.4%로 나타나 주목된다. 즉 사회와 교회의 차별성은 신앙과 영성에 바탕을 둔 봉사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의 수많은 문화 공간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5. 맺음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부류로 환과고독⁶³⁾

60) 1베드 4,10.

61)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12년 서울대교구 노인사목 실태 조사 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12, 7쪽.

62)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07, 263~270쪽.

63) 『맹자』, 「양혜왕 하」.

을 들었다. 늙어 아내가 없는 홀아비 환(鰥), 늙어 남편이 없는 과부 과(寡), 어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고(孤), 늙어 자식이 없는 노인 독(獨)이 그러하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에 궁벽한 사람들로써 의지할 데가 없고, 곤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러한 부류 중 셋이 바로 노인들인 것이다. 노인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굳건하게 설 수 없다.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인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미지근하거나 차가워진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거나, 혹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인 신자들이 자살을 고려한 이유로 삶의 의미상실 및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곧 ‘절망’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 기대와 바람을 포기한 상태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산다는 것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몸짓이자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절망을 현세에서 겪는 ‘생지옥’이라 한다면, 희망은 현세에서 맛볼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근원으로 ‘생천국’이라 칭할 만하다.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고 응답한 천주교 신자가 71.5%⁶⁴⁾나 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인 신자 자신이 견결한 신앙심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교회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인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희망 심기’라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해 한국천주교회는 오늘날 노인 신자들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근원, 그리고 신앙의 이유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신자들의 가치관과 행복관이 비신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나침반

64) 한국갤럽,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2)」, 2005.6.8.

이 되는 한편,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신앙선조들은 치명을 각오하고 잠깐 지나가는 현세에서 영원 무궁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였다.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을 흠숭하고,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영혼을 구하여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천주교 신앙과 영성의 지향점이자 현세에서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노인 사목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들이 하느님께 대한 강한 믿음 안에서 노년을 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⁶⁵⁾는 점을 상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오늘 우리 신앙과 영성의 지향점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하게 된다.

65)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사목방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8쪽.

[참고문헌]

『성경』

『가톨릭교회교리서』

『계시현장』

『전례현장』

『맹자』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_____, 「교회의 순례지(Sanctuarium in Ecclesia)」, 2017.2.11.

김문태, 「천주가사 <스항가(思鄉歌)>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184,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4.

_____, 「천주가사 <스심판가>·<공심판가>의 교리형상화 양상과 복음화 방향」, 『신학전망』 190,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5.

_____, 「천주가사 <선종가>의 교리 시가화 양상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_____, 「천주가사 <턴당강논>·<디옥강논>의 교리 시가화 양상」, 『어문연구』 17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_____, 「천주가사 <선종가>·<스심판가>·<공심판가>의 창작 기반 고찰」,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_____, 『사말천주가사와 벽위가사의 현세관과 내세관』,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07.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12년 서울대교구 노인사목 실태 조사 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2012.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사목방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_____, 『‘주일 미사 전례 활성화’ 교구별 토론결과 종합 보고서』, 2013.

_____, 『생명과 가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1997.9.14~26.

_____,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2005.6.8.

_____, 「한국인의 죽음과 장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9.2.21.

_____,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교리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죽음·심판·지옥·천국 — 가톨릭교회의 사말교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John Helliwell,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한국천주교회 굿뉴스 홈페이지(<http://www.catholic.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한국갤럽 홈페이지(<http://www.gallup.co.kr>)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www.transparency.org>)

세계은행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

2020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5.48%인 반면, 65세 이상 천주교 노인 신자는 전체 신자의 20.65%에 달하고 있다. 교회의 고령화가 사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수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과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신적 측면 특히 종교에 무관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짙다. 천주교 노인 신자들의 경우도 삶의 의미 상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자살 수용, 진리와 정의 추구 약화, 핵심교리 불신, 미사와 성사 참여 저조, 기도와 영성 생활 결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회는 신앙과 영성의 측면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 시대에 맞는 사목방향을 잡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오늘날 노인 신자들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근원, 그리고 신앙의 이유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신자들의 가치관과 행복관이 비신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말교리를 비롯한 교리교육을 강화하고, 미사를 중심으로 한 전례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며, 신심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때 교회는 신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자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주제어: 고령화, 노인사목, 사말교리, 교리교육, 전례교육, 신심활동, 봉사활동